



K리그 데뷔를 앞둔 광주 FC 선수들이 2일 삼무시민공원에서 패싱게임을 하며 몸을 풀고 있다.

광주 FC 베스트 11 조합 막판 담금질



최만희 감독 “개미 같은 부지런함, 거미 같은 조직력으로 K리그 데뷔”

“개미 같은 부지런함 거미 같은 조직력으로 그라운드에 나서겠습니다.”

5일 프로축구 K리그 개막을 앞두고 있는 신생팀 광주 FC의 마지막 담금질이 한창이다.

1일 광주 월드컵경기장에서 호남대와의 연습경기를 갖고 베스트 11의 윤곽을 그린 광주는 2일 오후에는 꽃샘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삼무시민공원에서 몸을 풀며 결전의 무대를 대비했다.

개미一样的 부지런함과 거미一样的 조직력으로 그라운드에 나서겠습니다.”

광주 FC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용병이 될 전망이다. 광주는 지난달 20일 브라질 출신의 공격수 주앙파울로와 로페즈의 영입으로 선수단 구성을 완료했다.

용병들이 공격력에 무게를 더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문제는 ‘시간부족’이다. 선수단과 훈련을 맞춘 시간이 짧은데다 컨디션이 올라오는 단계라 개막전에서 100%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최 감독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이다. 공격에 초점을 맞춰 용병을 우선 기용하다가 자칫하면 조직력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이런 고민으로 5일 개막전에서 상대팀 대구 FC의 골문을 두드릴 두 팀의 구성도 확정되지 않았다.

최 감독은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경

기 흐름을 주도하는 게 광주 FC의 전략이다.

용병 선수들의 공격력이 좋지만 아직 선수단과 호흡이 완전치 않은 만큼 초반 조직력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스타팅 멤버 구성에 고민이 많다. 토종 공격수와 용병 공

격수의 조합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상병도 최 감독의 구상에 변수가 되고 있다.

플레이 메이커로 기대를 모았던 미드필더

이승기가 발목부상으로 재활중이고, 차기

조광래호 승선 후보로 주가 상승중인 주장 박기동도 몸 상태가 완벽치 않다. 느슨한 종양 수비수들의 움직임도 최 감독이 풀어야 할 숙제다.

사령부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지만 선수단 분위기는 밝다. 2일 훈련에서도 선수들은 밝은 표정으로 그라운드를 누비며 필승을 다짐했다.

최 감독은 “젊은 선수들이다 보니 경험이 부족해 상대팀의 전력에 따라서 기복을 보이기도 하고 미숙한 플레이를 하기도 한다. 대신 젊은 선수들이라 폐기도 넘치고 점점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최선을 다한 플레이로 개막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광주 FC의 역사적인 첫 경기는 오는 5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박기동, 조광래호 승선할까

조 감독 5일 광주FC 개막전 보며 가능성 점검

홍명보감독과 K리거 옥석가리기

축구대표팀 차출을 놓고 ‘원-원(win-win) 전략 찾기’에 나선 조광래(57) A대표팀 감독과 홍명보(42) 올림픽대표팀 감독이 나란히 국내 프로축구 선수 접경에 나선다.

조광래 감독은 오는 5일 오후 3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광주FC-대구FC 간 프로축구 K리그 개막전 경기를 관전하고 나서 6일 오후 2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되는 FC서울-수원 삼성의 라이벌전을 지켜볼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홍명보 감독 역시 6일 FC서울과 수원의 맞대결을 보려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찾을 예정이어서 조 감독과 홍 감독이 관중석에서 나란히 경기를 관전하게 됐다.

하지만 두 감독이 지켜볼 대상은 서로 다르다.

먼저 조 감독은 5일 광주-대구전에선 지난해까지 일본에서 뛰다가 올해부터 신생팀 광주의 유니폼을 입은 스트라이커 박기동(23)과 2011 아시안컵을 앞두고 지난해 연말 제주도 전지훈련 때 소집했다가 부상으로 뛰지 못했던 수비수 이상덕(25·대구)의 기량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 감독은 “박기동은 득점력이 뛰어나고 균형도 좋은 데 아직 경기하는 걸 못 봐서 이번에 점검하려고 한다”고 설명했고 “이상덕은 영리한 선수다. 월드컵 예선에서 사용할 국내 선수들을 집중적으로 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홍명보 감독은 지난해 K리그에 데뷔해 19경기 동안 도움 3개를 뽑았던 미드필더 김태환(22)과 A대표팀에서도 활약했던 공격수 이승렬(22·이상 FC서울) 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명보 감독을 비롯한 올림픽 대표팀 코칭스태프는 오는 14일 남해에서 치러지는 춘계대학연맹전에 모두 투입돼 4월에 정된 대표팀 소집 훈련에 나설 후보들을 지켜보기로 했다.

/연합뉴스

홍명보호 27일 평가전

中 올림픽대표팀과 울산서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 대표팀이 오는 27일 중국 올림픽대표팀과 평가전을 치른다.

대한축구협회는 2일 “올림픽 대표팀이 오는 27일 울산에서 중국과 평가전을 갖기로 했다”며 “아직 정확한 경기 시간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오후 2시 전후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해 광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별다른 평가전 일정이 없었던 올림픽 대표팀은 오는 6월부터 시작하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선에 맞춰 중국과 평가전을 통해 유망주를 발탁하고 조직력 훈련의 첫 걸음을 내딛겠다는 계획이다.

/연합뉴스

광주 FC 3차 시민주 공모 합니다

홈경기 50% 할인 등 혜택

시민구단 광주 FC의 3차 시민주 공모가 시작됐다.

2일 시작된 이번 공모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며 광주은행 전 지점과 인터넷 (www.kjbank.com)으로도 청약할 수 있다. 시민주는 1주당 5000원이다.

주주가 되면 5일 대구 FC와의 개막전 무료 입장, 시즌 홈경기 50% 할인, 제품업체 물품 할인 구매 등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각종 정보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OUR PRIDE 광주 FC’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광주는 최만희 감독과 코칭스태프, 주치의 이준영 교수를 비롯해 주장 박기동 등 선수단과 구단 관계자들과 함께 1시민 1주 갖기 운동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광주FC는 지난해 ‘1시민 1주 갖기운동’을 통해 15억여원이 넘는 금액을 공모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SST 서울시스템기술(주)는 최고의 Vision을 제시합니다

도전과 창조
새로운 미래

- 신문제작 시스템 구축사업
- 공정관리 시스템 구축
(기사의 취재현장에서 가정에 배달되는 시점까지 공정관리)
- 캐바우 윤전기
(컨트롤 관리시스템 Backup구축)

서체개발

- 신문용 / 출판용 개발
- 차세대 폰트 기술 개발
(모니터와 프린터 등에 고해상도 표현)
- 다국어 서체 / 유니코드 개발
- 고품질 고해상도에 따른 폰트환경 개발
- 1천 5백만자 이상 서체보유

DTP

- 전문 출판용 프로그램
- Page Star 3.5
- NEO Page 2.0
- NEWS PLUSE

■ 백신프로그램 및 보안솔루션 공급 ■ 웹용 홈페이지 및 리뉴얼 (홈페이지 디자인 개발 / 기존 홈페이지 리뉴얼)

SST 서울시스템기술(주)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1가 1번지 전일빌딩 9층

대 표 이 사 오 주 일 TEL : 062-226-4093 | FAX : 062-226-4095

|가입회원 및 단체|

한국전자공업진흥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전자출판협회
한국정보과학회, 한국데이터베이스산업진흥회, 한국전산업협동조합, 대한인쇄문화협회, 광주·전남 정보산업협동조합